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11회)

高永煥

現代의 賃金制度는 極히 可憎한 것이니, 그는 單히 그 制度가 社會的 不正義를 惹起하며 永續하게 하는 砵當 畚이 아니라, 勞動하는 者를 그 勞動하는 目的으로부터 分離하는 砵當이다. 産業을 支配하는 目的의 全部는 資本主에게 集中이 되어 잇스니, 換言하면 賃金勞動者의 目的은 生産에 잇지 아니하고 賃金에 잇는 것이다. 資本主義 目的은 最小限度의 賃金으로서 最大限度의 勞動을 求함에 잇고, 賃金勞動者의 目的은 最小限度의 勞動으로서 最大限度의 賃金を 得함에 잇다. 이와 갓치 그 根本에 잇서 々 도저히 合致하기 어려운 利害의 衝突을 包含한 制度는 圓滑하게 또 成功하게 運轉되기를 期待하기 어려우며 效能에 잇서 々 자랑할 만한 社會를 造出하기 不能할 것이다.

現代의 모든 이와 갓흔 缺點을 救濟하는 方策으로 暗示되는 兩個 運動이 잇스니, 그 하나는 임의 着實한 發達을 遂하고 그 다른 하나는 아즉 幼稚한 狀態에 잇다. 그 두 運動은 무엇이나 하면 곳 消費組合運動과 산디카리즘[산디칼리즘]이다. 消費組合運動은 勿論 廣大한 範圍에 亘하여 賃金制度를 代身할 수 잇스나, 鐵道와 갓흔 것에 엇지 하면 適用이 될 가하는 것을 發見하기는 容易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와 갓흔 境遇에 容易하게 適用될 것은 곳 산디카리즘의 原則이라.

大概 組織이라 하는 것이 個人性을 沒却하지 아니하기 爲하여서는 그 組織의 分子가 強制 下에 잇지 아니하고 恒常 自發的이 되어야 할지오, 또 그 經營에 對하여 恒常 發言權이 잇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萬一 經濟組織이 純然히 自治制度가 되지 아니할 것 갓흐면, 그는 各自의 自由選擇으로써 行하는 活動 中에 存在하는 快感과 自尊心에 對하여 充分한 機會를 提供하지 못 할지라 到底히 上述한 바 個人性을 保有하지 못할 것이다.

勿論 産業에 必要한 機械的 勞動의 大部分을 그 自體가 興味 잇는 것이 되도록 하기는 不可能할 터이나, 그러나 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그 經營에 參加하는 權이 잇을 것 갓흐면, 그 勞動하는 苦痛이 現在보다 減少될 것은 明白한 事實이라. 그리고 勞動者가 엇더한 業에 對하여 興味를 感지 아니하고

다른 業에 對하여 그 精力을 發露하기를 要求하는 境遇에는 그 興味 업는 業에 對하여는 低廉한 賃金으로 少數의 時間만 勞動하는 機會를 提供하게 될 터이니, 이와 갓치 되면 活動에 直接利益은 업슬지라도 興味로써 그 엇더한 活動을 要求하는 모든 者에게 對하여 精力 發露의 機會를 提供하게 될 것이다. 勞動으로 하여금 興味있게 하도록 하는 이와 갓흔 모든 手段을 다한 後에 더욱히 行할 것은 現代에서 임의 行하는 것과 갓치 勞動時間 以外에 報酬로써 誘引하는 것이다. 그러나 此等 報酬가 滿足한 것이 되기 爲하여는 興味 업는 勞動이 勞動者의 全精力을 消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根本적으로 必要하며, 또 그 餘時間에는 다른 興味잇는 活動을 行할 機會가 存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갓흔 것을 保障하는 制度는 藝術家와 文學者와 그 他 自己의 滿足을 爲하여 各種 勞作을 行하는 者—그 勞作은 一般社會가 直히 그 價値를 認定하여 그 勞作者에게 生活을 保障하지 아니하는 것인데—에게 對하여 非常히 價値잇는 것이 될 것이라. 또 이와 갓흔 稀有한 例는 姑舍不論 할지라도 그와 갓흔 制度는 確實히 學校를 卒業한 後라도 더욱히 學術을 研究하고자 하는 欲望과 밋 訓練에 長久한 時日을 要하는 活動者가 되기를 스스로 期待하는 靑年男女에게 對하여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 될 것은 事實이다.